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 법공양 페이지

# “나는 속빠지고 참나 찾는 길”

### 퇴직해 제2의 삶 희망

하급공무원 생활이 26년째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생활이 너무 지겹게 느껴집니다. 정년퇴직은 9년 남았지만 이제 그만 제2의 삶을 살아보려고 밤낮으로 공리에 공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주인공을 믿고 관하라 하시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런지요. <이인수>

답 역시 믿음입니다. 제 나무가 제 뿌리를 믿지 못하고 밖으로 헤매거나 욕심을 앞세우는 까닭에 모두들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되는 것이나 안되는 것이나 다 틀이

## “나와 너 세계가 둘이 아니어야 하고 나와 과거 미래 현재가 공간줄 알아야”

아니게 자기 자신이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니 매사에 자신을 끌고 다니는 선장,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십시오.

자유훈을 새롭게 사시려거든 이를 명심해서 실천해 보십시오. 스스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 마음이 우주를 꿰뚫어

브라질 상파울루에 사는 교포입니다.

어느 날 스님들과 함께 저녁예불을 마치고 참선에 들어 갔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한국을 한바퀴 돌고 달나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온통 흥인지 들뜬 마음이 어찌하면 그토록 밝은 빛을 비추어 주는지 감탄한 나머지 반아침경을 끝까지 엮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자리에서 마치 레이저 광선처럼 힘이 솟아 났나리를 이리저리 꿰뚫고 다시 지구도 꿰뚫고 나갔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힘이려면 우주도 꿰뚫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스님도 한순간에 심고 법당의 부처님도 꿰뚫어 심겨 버렸습니다.

우애한 것은 아닐는지요. <박분음>

답 보살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는데 가고 올이 있더라. 내가 없는데 꿰뚫을 것이 있더라. 내가 없는데 삼켜버릴 것이 있더라. 그 모두가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니 조심하기 바랍니다. 보살님이 진정으로 불

이 아닌 도리를 알고자 한다면 첫째, 나와 내가 둘이 아니어야 하고 둘째,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니어야 하고 셋째, 나와 더불어 과거 미래가 둘이 아니게, 현재가 찰나찰나 화해서 나를 뿐 일체가 공한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 할머니가 미역들과 나타나...

몇달전 조상님을 영타에 모시고 열매되지 않아서입니다. 제 어머니의 꿈에 할머니께서 손에 미역을 들고 친정 동생내외의 뒤를 따라 가시더라는 겁니다.

어머님께서는 혹시 그쪽으로 몸을 받으러 가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천리만 네트>

답 어머니께서 생각하신게 옳습니다. 할머니께서 그 가족으로 태어난다는 뜻을 보여준 것입니다.

### 남녀의 참 성품 다른지요

마음공부를 해 나가다보니 살아 가는 것이 '그냥 그대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참성품을 찾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사회운동 - 예를 들어 기부장적 사회에서 여권운동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제 마음공부에 전념하는 것이 궁극에는 그런 운동에 뛰어드는 것보다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10년간 미국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정신적 지도자를 찾아다녔는데 스님처럼 색신이 여성인 분으로서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스승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 여성으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스님께서서는 하필 기부장제가 현존하는 한국에 나투셔서 저희를 이끌고 계시는 겁니까?

<박경화>

답 사회운동이나 여권운동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본래 물질계와 정신계는 둘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는데 나와 상대가 어디 있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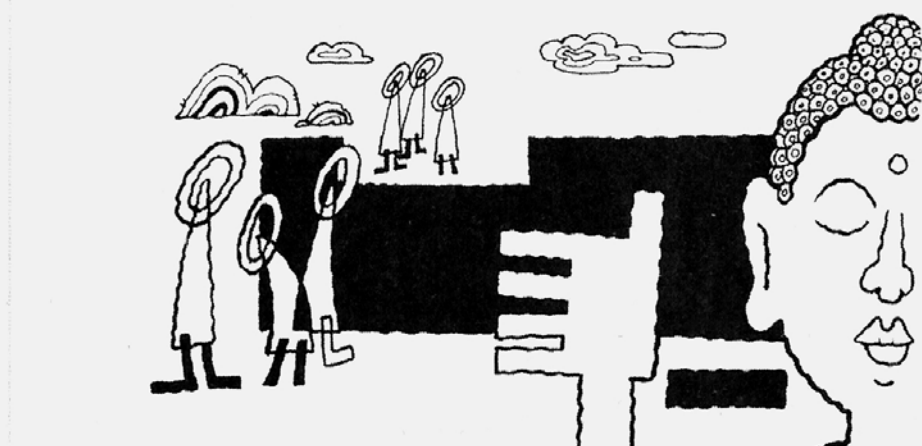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으며 본래로 내가 없는데 여자 남자는 따로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화하여 내가 한다는 게 없습니다.

마음공부를 해서 내 불성이 있는 줄을 알게 된다면 내 불성이 여여한 줄도 알게 되고, 내 불성이 일체를 맞추어 있는 줄 알게 되고, 더불어 내 불성이 만법을 걸림없이 들고 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시점에 한국에 나서 이 길을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에 대해 물으십니다만 내가 없으니 모두 이끄는 사이가 없이 가고 한번도 움직인 바가 없습니다.

### 말세가 온다고 하는데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말세라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 성경의 비밀을 밝혔다고 하는 어떤 책들을 보면 인류문명은 머지않아 멸망의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는 말들도 합니다. 스님께서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주영>

답 말세가 온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제 생각으로 그려낸 얘기이지 포괄적인 차원의 생각이 아니질 않습니까?

## 제나무가 제뿌리를 믿지 못하고 밖으로 헤매거나 욕심을 앞세우니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말이 하고 싶겠지요. 말세라고 하든, 불로 심판을 한다고 하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 - 불 그 자체가 각자를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지요. 전체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말입니다. 차원에 따라서 틀림없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불테면 마음공부를 하지 않고서 온 우주와 직결되어 있고 이 세상과 가설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내 몸 하나 가 꿰가는데도 견뎌지지 못한 일이 많지요. 술먹고 담배 피우고... 그것도 편안한 마음자리에서라면 별 문제가 없을텐데 그

냥 갈등과 번민속에서 그렇게 하나씩 이 몸이 망가진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실하지 못하면 지구도 그렇게 망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도 말세가 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다 심판을 받고 넘어갔는데도 모르지요. 지금도 심판을 받는 중일테요.

이 심판이라는게 뭐냐?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대로... 어디 자욕이 따로 있고 어디 말세가 판 곳에서 오게 아니라 전부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잘못을 저지르면 풀려가고 잘못된 일 없으면 그대로 살듯이 이 마음에 따라서 잘못을 저질러 풀려가게 말세입니다. 그러므로 말세가 온다

안 온다를 떠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 학원 운영이 적자입니다

문 부산에서 컴퓨터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학원은 첨단시설을 갖추었고 인근에 주택가와 초등학교가 있는 등 입지조건이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1년 가까운 적자운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인공에 놓고 말기는 공부를 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현실 여건을 보면서 제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구합니다.

답 이 몸을 싹이라 한다면 그 뿌리를 믿고 닦치는 대로, 자살할 뿌리에다 놓는다는 생각조차 없이 모든 것을 다 일임하십시오.

잘 된다 안 된다는 생각을 말고 오로지 믿고 놓으세요.

### 막행막식이 업이 될 땐...

문 저는 놓는다는 것을 거침없이 행동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침없는 행동이 자칫하면 막행막식이 되어 업을 짓게 될 터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대원>

답 거침없이 하는 것은 어른이 다 되고 다시 늙어서 또다시 한 살이 되어야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공부하는 중에는 다스리는 바가 있어야 하지요.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 나한테도 남한테도 이익이 되게 잘못된 생각이 들 때는 '아, 왜 잘못된 생각이 떠오르게 하느냐. 잘못되지 않게 다시 굴러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잘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신만이 할 수 있지 않아요!' 하고 놓는 겁니다. 그것이 다스리는 것이지요.

그것이 선이고 공덕을 쌓는 것이구요.

### 無我인데 누가 윤회하나요

문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하는데 나조차도 없다고 하면서 어떤 개체성이 윤회를 한다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듣기에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수행방법에 관한 내용 중에 참선이 따로 없다고 하시는 것은 좀 황당하게 들립니다. 저는 예를 들어 아침 일찍 일어나 공부할 때는 전통방식으로 참선도 하고 주문도 외우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 말씀

18면으로 계속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씨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 생활 속의 불교 140

## 내가 나를 고(苦)에서 건져 내려면

“내가 이 세상에 나왔기에 일체 만법이 나로 인해서 들고나며 상대성원리로 돌아가는 것이지 내가 없다면 아무 것도 없다. 그러므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참나·주인공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 줄을 알아야 한다.

자기로부터 우주의 근본이 비롯되었으므로 자기를 알아야 한다. 우주의 작용이 광대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의 근본보다 더 한 것은 없다.”

내가 지금 여기에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게 무엇이든 기쁨은 무엇이든 슬픔은 무엇이든 내가 없다면 성공이든 실패든 내 몫이 아니고, 세상의 만물 만사가 내 일은 아닐 것이다. 고로 내가 없다면 세상도 없고 우주도 없다. 내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세상도 존재하고 우주도 존재한다. 그러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것이다. 나 하나 있음으로써 천상천하가 있고 나 하나 없음으로써 천상천하가 없다. 내가 가장 잘난 존재라서 아니라 나는 곧 우주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일체 만법의 비밀이 풀리고 천상천하를 알고 우주를 섭렵케 된다. 내가 누구인지만 알면...

내 집에 문패 붙여놓고 내 재산을 등기하고 내 이름을 주민등록에 올려놓고 있다. 누구나 그렇게 한다. 이 물건 저 물건에, 이 일 저 일에 '나'라는 존재를 다 보증처리해놓고 산다.

나로서 주인공세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제 마음에서 '내가 주인'이라는 등기를 못하고 산다. 내 마음은 나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의지하는 달리 불안할 때도 많다. 한결 같지도 않다. 내가 분명 주인일 터인데 자제롭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내 집에선 틀림없이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에선 내가 주인이라고 자신할 수가 없다. 나의 진정한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사람의 근본 성품은 부처의 성품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누구라도 본질에 있어서는 석가모니불과 다르지 않고



역대 조사님들에 비해 손색이 없다.

비유하자면 우리들은 근본자리에서 제 불보살, 역대조사와 함께 염주알 꿰듯이 꿰어져 있는 셈이다. 고로 자기부처가 참부처요 나 역시 석가모니불처럼 천상천하유아독존의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다고 믿지도 못한다.

자신이 유아독존의 존재임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우리는 진정으로 아는 게 없다. 스스로를 모르는데 무엇을 안다고 하랴. 스스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스스로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안다.”

내가 내게서 나를 발견한다면 그것이 나를 우주의 주인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나를 구원케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게서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발견하지 못함이 나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를 불안케 할 것이다.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으니 삶에는 간혹 기쁨이 있을지라도 대체로 괴로움이 더 많게 될 것이다. 하인의 고단픈 삶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게서 나를 발견하면 먼저 자아부처가 참부처임을 믿어야 한다. 내 속에 석가모니불이 있고 여러 보살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지금의 나는 참나가 아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나로 돌아갈 때에 지금의 나는 참나가 된다. 유아독존의 그 나가 된다.

고로 지금의 나는 오로지 내 속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한시라도 빨리 우주의 주인으로 살려면 그것밖에 없다. 마음 편하게, 자제롭게 살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내 속의 참나를 믿고 일체의 살림살이에서, 하인이 주인을 믿고 따르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

믿고 믿어야 한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일거수일투족에서 나의 참주인을 믿고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써 내가 내게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구원해야 한다.

협찬: 김진극